텔레비전·광고·스포츠·관광여행 …

대중문화 속에 숨겨진 자본주의 논리

재미가 지배하는 사회

오팡시브 지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시청한다. 그뿐 아니라 국가 대항전으로 열리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선수들과 일체감을 느끼며 응원을 한다. 승패에 따라 함께 울고 웃는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의 오락이 된 지 오래다.

현대인들의 오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다. 가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될 정도로 텔레비전은 휴식과 여가 시간을 지배한다.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아무렇지 않게 향유하는 대중문화에 자본주의 지배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비판하면 대중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오만한 엘리트주의라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 책이 출간됐다. 프랑스의 저명한 계간지 '오팡시브'는 대중문화가 어떻게 자본주의 지배 논리를 재생산하는지 텔레비전, 광고, 스포츠, 관광여행이라는 네 가지 주제의 글들을 한데 모았다. 김훈의 '칼의 노래'를 프랑스어로 옮겼던 양영란 씨가 번역을 맡았다.

책에 따르면 텔레비전과 광고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면 스포츠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체화하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 경쟁과 승자독식, 서열 등을 익힌다. 그러나 스포츠가 열정적이며 중립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매우 정치적이며 자본주의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스포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애국심을 매개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스포츠 경기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관광 또한 마찬가지다. 규격화된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국의 도시를 방문하지만, 실상은 어디를 방문하든 비슷비슷한 풍경을 보게 된다. 각국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프라를 정비하지만 사실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이다.

책은 '대중의 이익에 역행하는 대중문화'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자본주의 확산이 낳은 대중문화의 발전이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어떻게 해체하는지, 공동체 일원이 어떻게 점차 고립된 개인으로 전락하는지 보여준다.

〈갈라파고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에선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한국인의 거짓말

김형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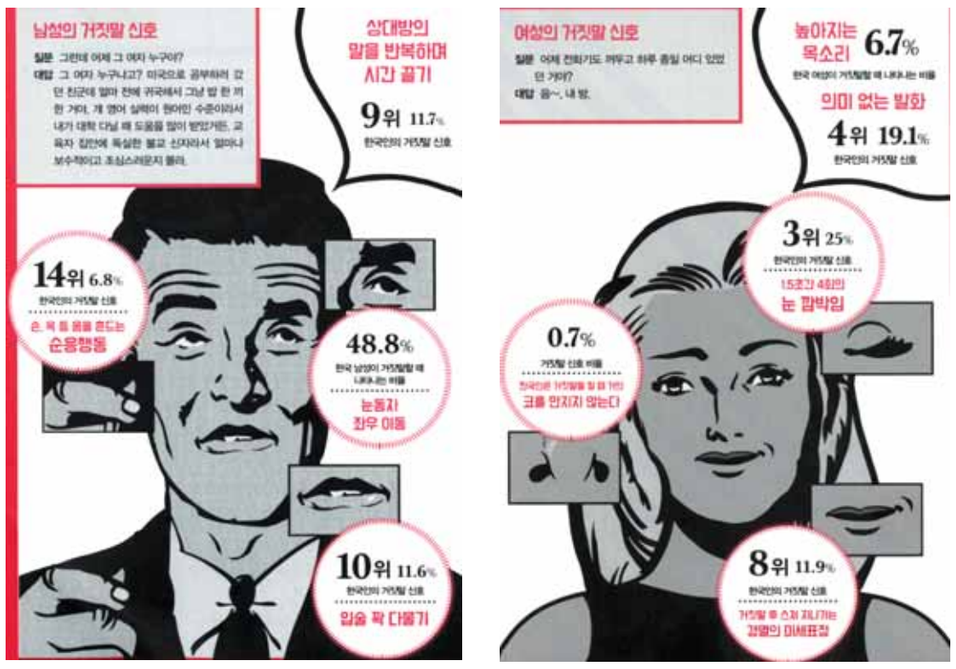
작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는 심정은 무엇일까. 아마 배신감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단단히 속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예전에 박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였을 때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믿었던 대통령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원칙과 신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대통령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속았다는 생각을 넘어 분노에 휩싸여 있다.

속았다는 것은 상대의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의미다. 지난 6월에 한 일본 경제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인은 거짓말쟁이고, 한국은 사기 대국이다." 물론 이 기사는 혐한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하멜이 쓴 '하멜표류기'에도 "조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는 표현이 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의 거짓말 습관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을 분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신체 언어 및 행동 심리 연구가인 김형희 씨가 펴낸 '한국인의 거짓말'은 1038개의 사례로 읽는 거짓말에 관한 보고서다. 저자는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를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잘하는지를 밝힌다. 또한 거짓말을 간파해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도 조언한다.

한국인의 거짓말 사례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남녀 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은 거짓말을 할 때 무수히 많은 진실을 제공해, 거짓말을 은폐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을 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달리 여성은 제공하는 정보 자체를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취한다. 거짓말을 할 때 급격히 말수가 적어진다는 것이다.



남녀의 거짓말 신호에는 몸짓, 눈짓 등 다양한 습관이 있다. 〈추수밭 제공〉

언어적인 단서 외에도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도 '한국적'인 단서들은 거짓말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어떤 대학생들이 직접 거짓말에 대해 실험한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접관이 대학생에게 질문했다. '모 교수님을 좋아하시나요?' 그러자 그 대학생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답하면서 왼쪽 입 끝이 살짝 올라갔다. 이른바 '썩소'라고도 하는 이 미소는 상대방을 업신여길 때 나타난다."

또한 거짓말 실험 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서 가운데 하나는 '눈동자 좌우 이동'이다. 흔들리는 눈은 입보다 훨씬 말을 잘 한다는 것을 뜻한다. 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거짓말에 대한 정보를 유명인들의 거짓말과 영화 속 명장면과 같이 친숙한 사례를 근거로도 설명한다. 사기꾼 조희팔의 연설문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담화 사이의 공통점으로 보는 심리조작의 기술부터 명배우들이 노련하게 흉내 낸 거짓말쟁이의 습성까지 아우른다.

이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은 그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하야를 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거짓말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추수밭·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를 통해 바라 본 이주와 인종차별

영화, 담다 그리고 비추다

신동규 외 지음

이번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가 쏟아낸 많은 말로 인해 인종주의가 두드러진 선거였다.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이주민의 국가로서 인종차별적 발언이 금기시되는 나라였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환호하는 백인남성들의 사진은 인종주의를 부각하는 상징적인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또는 다른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그럼에도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면에서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고 사회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주사학회가 기획하고 신동규 창원대 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16명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영화, 담다 그리고 비추다'는 영화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이주와 인종주의에 대한 보고서다. 사실 영화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이야기 구조는 현실의 재현이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기호체계다.

책은 모두 7부 16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주와 인종차별을 다룬 16편의 영화를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갈등을 다룬 '킹덤 오브 헤븐'부터 영국 런던 빈민가에 정착한 파키스탄 이주민 가족 삶을 다룬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등 각각의 영화는 차별의 실상과 경계를 떠도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다.

〈에코리브르·2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괴물로 태어나거나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 이야기

공포의 세기

백민석 지음

지난 1995년 등단 이후 8년 동안 7권의 책을 써낸 뒤 돌연 잠적, 1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등장한 작가 백민석이 다시 필력을 과시하고 있다. 2013년 복귀와 함께 출간한 소설집 '혀끝의 남자' 이후 '수림' 연작과 '아트 워' 연작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장편 '공포의 세기'를 펴냈다.

소설은 어느 날 무서운 존재가 내 옆으로 다가와 꿈과 현실을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모티브로 한다. 괴물로 태어나거나,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출발한다.

'공포의 세기'에서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공통된 경험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도처에서 각자의 타깃을 향해 테러를 저지른다. 서로 간에 원한이나 선과 악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눈에 안 보이고, 실체가 없고,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잡히지 않는 말 그대로 호러에 가깝다.

〈문학과지성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민이 주인인 나라 … 독립운동 역사 폄훼 안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한시준 지음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며 '역사의 정의(正義)'를 흔드려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출간됐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구해온 한시준의 연구성과를 묶은 책이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 이래 제기되고 있는 '건국'과 '건국절' 문제에 대해 역사적 근거와 논리도 없다는 점, 법률적·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1부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반을 마련한 홍진과 안창호, 2부에서는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을 지낸 이승만·박은식·홍진·김구, 3부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이론가로 역할한 조소앙과 신익희, 4부에서는 한국광복군에서 총사령관으로 활동한 이청천·황학수를 다뤘다.

〈역사공간·1만9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